육신 주(酒)의 주사(酒邪)

(롬13:11~14)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육신 주(酒)의 주사(酒邪)>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술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맥주, 소주, 막걸리, 청주 외에 위스키라든지 브랜디, 보드카, 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그러한 술에다 이 몸을 말하는 육신 주(酒)라고 하는 술을 끼어 넣어 봅니다.
그리고 육신 주(酒)를 마셨을 때에 나타나는 주사(酒)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육신 주(酒)라는 거는 없지요, 그냥 만든 말이지만 분명히 육신 때문에 취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육신 때문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주사(酒邪)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냐? 육신 주(酒)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육신 주(酒)를 마셔서 나타나는 주사(酒邪)로부터 깨어나는 것입니다.
주사(酒邪)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비정상적이거나 못돼먹은 행동을 버릇처럼 하는 것을 우리가 주사(酒邪)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것은 봤지만, 술좌석에서 주사(酒邪)를 부리는 사람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아버님도 형님들도 술을 마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술 마셔서 주사(酒邪)를 부리는 사람들, 그런 자리에 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주사(酒邪)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을 한 번 찾아 봤더니, 연예인들의 특이한 주사(酒邪)에 대한 소개 글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보면, 개그맨 지 상렬 씨 있지 않습니까? 지 상열 씨는 술이 굉장히 아주 센 모양인데, 이 양반의 주사는 술이 잔뜩 취하면 자기 배에다가 침을 뱉는다고 그래요.
하하하 특이하죠? 자기 배에다 침을 뱉는대요.
그리고 또 개그우먼 중에 안 영미 씨라고 계시는데, 그 분은 술만 마시면 그렇게 영어가 술술 나오는데 전부 욕이랍니다.
술만 마시면 유창한 영어로 말을 하는데 다 욕이라는 거예요.
또 이 주사(酒邪)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사(酒邪), 1등인 주사(酒邪)가 뭐냐 하면(연예인들 중에서) 옷을 벗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면, 가수 에릭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동료가수 김 동완 씨의 집에 술 먹고 들어가 갖고는, 김 동완 씨가 한눈파는 사이에 옷을 다 벗고, 발가벗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답니다. 김 동완 씨가 연예인이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사진이라도 찍혀서, 인터넷이라도 올라올까봐 막 급해서 쫓아 나갔는데 막 도망을 가고 숨바꼭질을 하더라는 얘기에요.
겨우 잡아 가지고 집 안으로 데려왔다는 얘기가 있고, 신 동엽 씨 같은 경우도, 왜 그 탤런트 부부 이 재룡 씨와 유 호정 씨 부부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술 먹고 찾아 가서는 재워줬더니, 집 안에서 완전히 홀딱 벗고 잠을 자더라는 그런 얘기들, 영화배우 예 지원 씨는 술만 먹으면 고전무용을 추면서 샹송을 부른답니다.

하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참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취한다는 말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쏠리어 넋을 빼앗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 봤더니.
넋을 빼앗기다, 쉽게 말하면 제 정신이 아닌 거죠.
사람이나 물건에 시달려서 얼이 빠지다시피 된다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육신 주(酒)라는 것은 마음이 마시는 술입니다.
이 술은 안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60억 인구 모두가 다 마십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주사(酒邪)가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천군천사들이 내려다 볼 때, 주사(酒邪)입니다.
육신 주(酒)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지금 주사(酒邪)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닌 거

예요(돈 돈 하는 게).

우리가 13장 앞부분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하는 얘기의 근본의도가 우리 마음에서 권력의 의지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하는 얘기를 함께했습니다.
권력을 탐하면서 권좌를 노리고, 권모술수를 행하며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주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승진해야 되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부장님에게 사장님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고,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주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술에 취해 가지고.
어떤 술? 육신의 술에 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술에 취해 가지고 주사(酒邪)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해봅니다.
맨 마지막 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주사(酒邪)를 부리는 겁니다.
육신 주(酒)를 마시고, 육신 술을 마시고 주사(酒邪)를 부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술처럼 마실 수가 있느냐?
다시 말씀 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부터 별 볼일 없이 작은 회사의 말단 직원, 노숙자까지 다 똑같습니다.
노숙자가 된 것도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된 것이고, 대통령이 된 것도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 끝에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의 빈 공간 때문에 소원을 갖게 되고, 이루고 싶은 일이 있게 되고, 갖고 싶은 것이 생기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동물을 사랑하게 되고,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이 모든 이유가 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채우고 싶은 흡입력에 의해서 삶의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인데, 이때 60억 인구 전체가 취하는 공통된 방법이 뭐냐 하면, 육신을 이 흡입력의 첫 번째 대상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 취한 상태가 돼 버립니다.
이 몸에 취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이, 몸으로 접하는 이 세상에서 마음에 채워 넣을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 주사(酒邪)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흡입력이 제일 먼저 몸을 빨아들인 다음에, 이 몸에 의해서 취한 상태가 되고, 그 취한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이 몸으로 만나는 것들을 마음에 빨아들이고 채워 넣어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다 정신 나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나간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볼 것이다, 이런 비전? 술 취해서 하는 거예요.
지 상렬 씨가 자기 배에 침 뱉는 것이나, 신 동엽 씨가 남의 집에 가서 홀딱 벗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 지원 씨가 고전무용을 추면서 샹송을 부르는 그런 이상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사업 잘 해보겠다는 생각, 이 땅 위에서 한 번 보람 있는 삶을 내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한 번 살아보겠다는 이런 식의 모든 생각들, 이 땅 위에서 내 인생을 위해서 갖게 되는 모든 소원과 모든 바람과 모든 결단과 의지가 다 주사(酒邪)입니다.
육체에 취해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1차적인 이야기만 나와 있지만, 육신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주사(酒邪)의 내용을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이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갖고 함을 통하여 내 마음을 채워보겠다고 하는 게, 다 육신 주(酒)에 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이고 소원이고 바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는다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이, 제일 먼저 내 육신을 빨아들여서 육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육신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모든 물건 대상 앞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는 뭐 돈도 해당 될 수가 있고, 좋은 아파트도 해당 될 수가 있고, 명품 빽

도 해당 될 수가 있겠지요?
또 사람에는 애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일에는 뭐 사업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신분에 대한 꿈도 있고, 뭐든지 다 될 수가 있겠지요?
이 땅에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주사(酒邪)가 끝이게 됩니다.
육신 주(酒)에 취해있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사용해요. 근
데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는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한다.
그럼으로써 구원이 가까워졌다.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이겠습니까?
시기적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쨌든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때인가.
그렇다면,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가정해서 AD 한 45년쯤에 처음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근데 로마서를 쓰는 게 예를 들어 55세이다.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니까, 알지 못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10년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뒤로 2000년이 흘렀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10년 가까워진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과 연관시켜서 보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육신 (酒)에 내 마음이 취해 있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되는 모든 생각은 주사(酒邪)였습니다.
그 주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야지, 공부 많이 해서 높아져야지, 예쁜 아내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자식들 일류대학에 들여보내서 보람을 느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이 세상에서 이룰 일에 대해 다~ 쏠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취한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인가에 쏠려서 넋을 잃어버리는 게 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시달려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게 취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맨 먼저 마음이 받아들였을 때, 육신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완전히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도, 저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간구해도, 저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곧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도, 전부 생각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마음이 갇혀버립니다.
이게 바로 잠을 자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깰 때가 되었다는 얘기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일에 잠겨있을 때, 육신에 취해서 가지고 주사(酒邪)를 부리면서 이 세상일에 마음이 갇혀 있을 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듣던 것이고 천국이 있다고 말로 믿기는 했지만 천국이라는 게 체감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피부로 느껴지지를 않았다는 건데,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매~번 육신이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옷입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득하게 느껴졌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고, 체감되지 않았던 하늘나라가 자꾸 체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하늘에 내 마음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이고, 위에 있는 하늘을 체감하는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천국이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리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싶고, 채우고 싶은 그 욕망과 흡입력이 몸에 붙었을 때, 어둠이 나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은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합니까?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한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한참 방탕했고, 기독교를 버렸고, 기독교를 알고 있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마니교라든지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던 어거스틴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란 호색에 빠져있던 그런 상태, 그러다가 밀라노 어느 정원에서 있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취(取)해서 읽어라, 여기서 취한다는 건 술 취한다는 게 아니라, 잡으라는 얘기죠?
잡고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잡고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회심을 하게끔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몸을 붙잡은 상태에서, 몸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게 될 때, 내 삶에 칠흑 같은 어둠이 덮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방탕했을 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싱글녀와 대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 되었어요, 이젠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 뒤로는 그 분을 못 만났습니다마는, 일류 여대 체육학과를 나온 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면서 피트니스센터가 한참 유행할 시절에 최고로 꼽는 피트니스 센터의 매니저로 여기저기 부름을 받고 다닙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화려한 싱글녀의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대학동창들을 만나요. 일류 여대를 나왔지만 시집을 갔습니다, 다~.
제가 대화를 나눌 때가 벌써 40살이 넘었을 때니까.
동창을 만나면, 전부 남편에 매여 있고, 자식에 매여 있고, 시댁에 매여 있고 그러면서 늘 자기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많은 연봉에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자친구들 뭐 때를 따라서 바꿔가면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혼자 그렇게 살았는데, 40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피트니스센터 어디에서도 자기를 매니저로 불러 주지도 않고(나이가 먹었으니까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이길 수 없는 외로움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 중에서 기억이 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 삶의 매임이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육신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매번마다, 매순간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죽었다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을 빨아들이고 육신의 술에 취해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소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주사(酒邪)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 상렬 씨가 술을 먹고 자기 배에다 침 뱉는 것처럼, 신 동엽 씨가 남의 집에 가서 발가벗고 잠자고 있는 것 같은 주사(酒邪)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일을 소원한다는 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꼭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이 아니라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주사(酒邪)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괴이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쟤가 왜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고 저 난리냐?'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겁니다.
지금 이루고 싶은데 형편이 안돼서 못 이룹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하고 싶은 걸 못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걸 못 사고 계십니까?
은혜인 줄 아세요. 은혜인 줄 아세요.

몸을 통해 얻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거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갖게 된다는 건, 여러분 삶 속에 저주와 어두움이 충만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육신에 취해있는 상태에서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매여 있는 것, 이게 축복 자체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매여 있어서 부자연스럽습니까?
육신에 취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원하는 걸 못 이루고 있습니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은혜인 줄로 알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육신 주(酒)에 취함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주사(酒邪)를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손끝과 발끝에 복숭아 열매 맺혀지고, 사과 열매 맺혀질 정도로 그런 것과 같은 열매

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보다 먼저 취함을 통하여, 육신주(酒)에 취해서 정신없이,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시고 천사들이 볼 때, 기괴한 해괴한 주사를 부리는 일을 중단하고, 오직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